

『2026년도 자동차·조선산업 발전 유공(조선산업)』
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

조선해양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「2026년도 자동차·조선산업 발전 유공(조선산업)」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

2026. 7. 14
산업통상부장관

1. 포상 개요

- (목 적) 2026년도 '제23회 조선해양의 날'을 기념하여,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선정·포상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, 조선해양인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자 함
- (포상일시) 제23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 ('26. 9월)
- (포상규모) 미정 ※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정부포상 규모 최종 확정
- * '25년 포상 규모 : 정부포상 12점(훈·포장 4, 대통령표창 4, 국무총리표창 4)

2. 포상 후보자 공적 : 불입 참조

-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은 예비명단을 포함한 성명 '가나다'순임

3. 기 타

- 공고기간: 2026년 7월 14일(화) ~ 7월 29일 (수)
- 포상 후보자 공적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(담당자: 조선해양플랜트과 송민정 주무관, 044-203-4337, alswwjd137@korea.kr)
- * 보내주신 의견에는 별도 회신하지 않으며,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

2026년			
	성명	소속·직위 (수공기간)	주요공적
1	권병훈	HD한국 조선해양 /전무 (290904)	■ 조선해양 전동화·디지털화를 위해 촉발전기시스템/전기추진시스템 패키지 기술개발 수행. 단순 기자재 공급이 아닌 통합 패키지 사업모델 구축 및 시장 참여 ■ 촉발전기패키지 독자 개발 및 상용화 - 누적 수주 66척, 24년 500억원 매출 ■ 전기추진 패키지 독자 개발 및 상용화 - LNG BV 저압 교류 전기추진선박, 울산 태화호(국내 최초 배터리 및 DC 전기추진시스템 적용) 저압 DC 전기추진선박 인도 ■ 촉발전기/전기추진 패키지 검증을 위한 디지털트윈 체계 구축 - 실선 탑재전 다중 운전 및 고장 조건 사전 검증으로 품질 리스크 선제 제거가 가능한 디지털트윈 기술 개발 ■ 국내 최초 선박용 VFD를 개발하여 시스템 국산화 및 독자화를 실현하고, 조선산업의 전동화·디지털화 전환에 필요한 핵심 기술 혁신 주도
2	김경익	(주)창남조선 /상무이사 (100316)	■ 다양한 등급의 어선을 매년 20여척 이상 전문으로 건조하여 어업인들의 어촌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협력업체 포함 약 200여명의 인력 유지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■ 대형선망어업 운반선 건조시 갑판 위 어창문을 자동으로 바꾸어 선원들의 안정성과 작업성 높여주었으며, 기존 어선에서 쓰이는 목갑판을 합성테크목으로 변화시켜 선박의 복원성과 안정성을 크게 증대하였고,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 개발의 일환으로 89톤급 채낚기 선박을 성공적으로 건조납품
3	김병국	한화오션 /상무 (280308)	■ 머신러닝 기반 선형최적화 기법의 실무 적용을 추진하여, 개발자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 오던 선형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, 선박 제품의 친환경 연비 경쟁력 제고에 기여 ■ 선박 블록간 배관 연결을 위한 조정관 제작용 간이 측정기 개발, 용접 예열 조건 완화를 위한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, 조선소 생산 현장의 작업 안전과 생산성 향상 기여
4	김병성	대한조선 /수석 (301215)	■ MARAN SHUTTLE TANKER Project에 DNV DYNPOS(AUTR) 및 DP2 Class Redundancy Design을 적용하여 선박 안전성과 운항 신뢰성 향상에 기여 ■ MARAN SHUTTLE TANKER Main Engine, CPP 및 Steering Gear Dual Power Feeding 개념 적용을 통해 Emergency Condition 상황에서 DP Capability 및 Vessel Safety 향상에 기여 ■ 8,800 TEU Containership 계약 과정에서 Two Islands Design, Cyber Resilience Notation, High Voltage 배전반 구성 등 고사양 기술을 적용하여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
5	김정태	비중공업 /책임 (310815)	■ 1994년부터 HJ중공업(주)에서 상선/특수선/해외제작처 선체설계 담당 및 보직업무 수행 ■ 상선부분 주요수행 - LNG(한진평택호), 8,300TEU 댐공법 적용호선, 케이블쉽 등 약 180척 설계수행 ■ 특수선부분 주요수행 - 독도함, 해양경비정(500톤), 3D 물리탐사선 등 설계수행 ■ 해외제작처(필리핀 수빅)부분 주요수행 - 현지 설계원 300명 양성, 20,000TEU 컨테이너선 건조, 300K 초대형 유조선 건조 ■ 공정 상향을 위한 각종 의장품 및 대형의장품 설계단계 전환(의장→선체) 적용

2026년				
	성명	소속,직위 (수공기간)	주요공적	
6	김형욱	SB선보(주) /대표이사 (240110)	- 조선기자재 중심 사업을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전환 및 SB선보 통합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- LNG FGSS 및 친환경 연료시스템 기반으로 수출을 약 5배 확대하며 국내 조선해양기자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- 국내 최초 수전해 설비 구축 등으로 친환경 전환 기반을 마련 - 매출 성장과 고용 확대를 통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	
7	노태진	케이조선 /상무 (300117)	30년간 조선업 안전관리분야의 전문가로서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부서장으로 발령받아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, 사전예방관리 활동,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 참여, 현장 밀착형 안전보건 문화 추진 등을 통해 제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 -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 예측하여 예방 및 개선하고 안전보건시스템을 경영시스템에 정착시키는 각고의 노력 끝에 9년간 중대재해 '0' 의 성과를 달성했고 정부 안전보건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조선업 전체의 안전보건 성장에 기여	
8	박기배	HJ중공업 /책임 (220305)	2004년도부터 HJ중공업(주)에서 상선 신조 사업의 신조개발/수주 PM(Project Manager, 사업관리자), 기술영업 및 선장설계 업무 성공적 수행 - 해외 7,700TEU급 LNG 이중연료추진선박 신조수주 PM(사업관리자)로 참여하여 친환경 선박의 성공적인 개발 및 수주에 기여 - 국내 9,000TEU급 메탄올 이중연료추진선박 신조수주 PM(사업관리자)로 참여하여 친환경 선박의 성공적인 개발 및 수주에 기여	
9	박은수	한국 수출입은행 /팀장 (220406)	- 선박수출금융 지원을 통한 수주가뭇 해소 기여 - 일본의 한국 조선해운업에 대한 WTO 제소 사건 대응에 기여 - 조선-해운업계 상생 지원 정책목표에 기여 - HMM/현대중공업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 금융지원으로 국내 해운산업 재건에 일조 -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선박을 중심으로 K-조선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 실시	
10	박창호	은광산업(주) /상무 (280729)	- 약 28년 이상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 현장에서 생산관리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생산현장의 체계화와 엔진부품 가공기술 향상에 기여 - 은광산업 생산총괄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생산공정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, 생산데이터 기반의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기반을 마련 - 작업 표준화와 실시간 생산현황 관리체계 도입, 공정별 인력 재배치로 공정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 조선기자재 및 엔진부품 생산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	

2026년				
	성명	소속,직위 (수공기간)	주요공적	
11	박태수	(주)두원 하이스틸 /대표이사 (211206)	- 조선해양 배관 산업 22년간 종사(2009년 창립) - 해양 플랜트(FPSO), LNG 선박 등 초저온 배관 제조 자립화를 통한 공급망 확대 - 선제적 설비투자(130억)로 One Stop 배관 생산 체계 구축(AI기반 자동화 설비 증설) - 최근 3년간 수출액 50% 증가 및 천만불 수출 달성(국내 조선중공업사 외 미국 및 캐나다 군함 제조사 공급) - 해외 선급 인증 및 오일메이저 공식 공급업체(Vendor) 등록 - 경남 지리적 이점 활용, 신규 제조 부지 및 설비 증설에 고용 확대 창출 - 안전관리 기반 무재해 달성 및 ESG 경영 실천	
12	송재훈	(주)유니테크/ 반장 (170605)	17년간 LNG 운반선용 극저온 접촉소재 생산공정 운영 및 품질관리 수행 - 글로벌 시장 점유율 98% 제품의 품질 수준 유지 및 공급 체계 운영 기여 - 생산설비 증설 및 신규 생산라인 운영 참여를 통한 생산 대응 기반 강화 2025년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7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기반 유지 기여 - 조선산업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일조	
13	이승환	HD현대삼호/ 전무 (310400)	- 창립 이래 최대 경영성과 달성 25년 매출 8조 714억원, 영업이익 1조 3,628억원 - 고부가가치 LNG선 생산체계 고도화로 건조 경쟁력 강화 22년 6척 → 25년 9척, 26년 10척 목표 - 적기 인도체계 구축 및 조기 인도를 통한 글로벌 고객 신뢰 제고 25년 33척 인도, 총 1,283일 조기 인도 - 조선업 AX 실증센터 유치 및 AI 자율운영조선소 구축 - 조선·해양 AX 실증 기반 구축 사업 유치(총 사업비 231.61억원, 26.7~30.12) - 생산 자동화 혁신 및 스마트 제조 고도화 - 국내 기업 최초 2025년 Gartner Eye On Innovation Awards 수상 (25.10) - LPG Tank 전량(100%) 국내 협력사 생산체계 전환 기반 마련으로 공급망 구조 고도화	
14	이정선	한화오션 /상무 (300407)	1996년 입사 이후 30년간 다양한 고부가가치 선박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영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 - LNG 추진/발전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GCU 및 DF 엔진 안전 기준과 산업 표준 정립을 주도하고, LNGC, FSRU 등 수주 확대와 친환경 전기 추진 신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통해 국내 조선산업 발전에 공헌 - 글로벌 선급 및 선주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회사의 기술적 위상과 시장 신뢰도를 제고	

2026년			
	성명	소속,직위 (수공기간)	주요공적
15	이준혁	HD현대삼호/전무 (290413)	■ 팔란티어 활용 도장 불량률 33%p 개선, 용접 재작업비 2.8억원 및 Q-WIN 도입으로 1.2억원 절감 ■ 3D 스캐너 및 드론 활용으로 공정 3일 단축 및 연간 9,500만원 절감 ■ 야드 주도형 감리(Hi-TRUST) 도입, 적용률 58% 달성 및 그룹사 확대 ■ 협동로봇 80대 운영(자동화 70%), 휴머노이드 및 AMR 물류 인프라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, 드론 기반 야드 현황 AI 서비스 Gartner 준우승 ■ 야드 운영 대시보드 플랫폼 Twin-FoS 고도화, AI 번역기 '삼파고' 개발로 현장 소통 강화 및 데이터 전문 인력(DA) 200명 양성 ■ 크레인 예지보전(Hi-ECMS) 개발 및 미국 크레인 수주
16	조형민	케이조선/이사 (210407)	■ 물류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용창출 - 배관 후처리 물류센터 설립(적기입고율(77%→93%)혁신, 고용창출: 10명) - JIT시스템 도입 및 물류센터 효율화 ■ 원가절감형 공동 R&D 활성화 ■ 2025년 원가절감 206억 ■ 동반성장 펀드 380억 조성 및 협력사 해외 동반진출 지원 ■ 미국/이란 전쟁 Risk 민관 공동 대응
17	최부영	대한조선/차장 (150105)	■ D/H & E/C 공정 사내화 및 신규 PE 공법 구축으로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일정 단축 및 품질 향상에 기여 ■ 사내 제작 체계 구축으로 척당 약 15억원의 원가 절감 및 관리자 Multi화를 통한 고정비 절감과 직원 역량 강화에 기여 ■ 지속적인 공법 개선으로 척당 약 20일의 L/T 단축 및 척당 약 900M/H의 실투입시수를 절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공정 상류화 기여
18	최영환	(주)창남조선/공장장 (340008)	■ 여러 톤급의 어선을 600여척이상 건조하고, 1,500척이상 개조,수리하여 어업인들의 어촌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■ 대형선망어업 운반선 건조시 갑판 위 어창문을 자동으로 바꾸어 선원들의 안정성과 작업성 향상 ■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 개발의 일환으로 89톤급 채낚기 선박 성공적 건조 납품
19	한병균	바인플랜트(주)/대표이사 (170404)	■ 국내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3척의 정기오버홀(ROH) 성공적 완수를 통한 K-방산 및 조선 MRO 위상 제고 ■ 영국·캐나다 등 우방국 합정 MRO의 성공적 인도로 한화오션, 탈레스 등과 글로벌 방산 생태계 확장 ■ 대·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